

# 협회소식

## NEWS

### 본회, 회장단 회의 개최



본회는 지난 7월 2일 최상백 회장을 비롯 이명복 부회장, 전재명 부회장, 김건태 부회장 등 회장단이 모여 최근의 양돈업계 및 협회 현안문제와 동향에 대해 회의를 가졌다.

회장단 회의에서는 최근 규제완화 정책과 맞물려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 허용 등이 거론되자 이를 적극 반대하기로 하는 등 최근의 현안문제를 토의했다. 또한 회장단은 한국교회평신도협의회가 추진하는 사랑의 돼지 천사마리 북한 보내기 운동을 적극 후원키로 했다.

### 본회 회원 전용 단체보험 등장

- 본회, 6월 25일 교보생명과 단체협약 체결



▲최상백 회장(왼쪽)과 최정훈 교보생명 상무이사가 단체보험협약을 체결하고 악수하고 있다.

본회는 회원들이 농장작업시 당할 수 있는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본회 회원 및 가족을 위한 단체보장보험 협약을 맺었다. 이같은 협약은 최근 돈사시설의 자동화 및 기계화에 따른 각종 재해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양돈인들에 대한 위험보장수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본회는 6월 25일 회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교보생명과 단체협약을 맺고 주문형 상품 개발을 의뢰하였으며, 교보생명은 「대한양돈협회 회원만을 위한 단체보장보험」을 개발, 7월 중순부터 판매 개시한다.

특히 이 상품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보험료가 비싸지는 것이 아니라 전연령 단일보험료를 적용해 고연령일수록 동일보장 상품보다 크게 저렴할 뿐만 아니라 암은 물론 재해장해시 고액의 장해연금을 지급한다. 특히 휴일보장, 입원, 암치료 등의 특약을 선택부가하여 양돈인들의 라이프스타일에 알맞게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 본회, 대기업 축산업 금지조항 존속 등 건의

### -종돈개량 업무도 민간생산자 단체로 일원화 요청

본회는 정부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 금지조항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현행대로 존속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본회는 지난 7월1일 의견서를 통해 대기업의 축산업 영위 금지(축산법 제27조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28조) 폐지(안)에 대하여 ▲현행 허가 상한선은 모든 2,000두이며, 축협 계열화 및 영농조합법인의 경우는 사육상한선이 없어 사실상 규제가 없는 것이며, ▲규제대상인 30대 재벌기업들도 종돈업 또는 등록규모 이하의 양돈업을 할 수 있으며, 비육돈 사육까지 참여하면 최근과 같이 양돈농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고, ▲규제완화란 대부분의 농민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것을 철폐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으며, 본 규제 철폐는 정부가 최근 문어발식 경영으로 지탄을 받는 30대 재벌에게 농민과 결합되는 비육돈 사업까지 허용하는 모순을 갖게 된다고 밝히고, 이러한 이유를 들어 축산분야 규제개혁(안)에 대해 대기업의 축산업 영위 금지는 계속 존치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종돈개량 효율화를 위한 개선 대책으로 ▲종돈개량 관련업무는 생산자 단체에 이관하고, 정부는 종돈개량 여건의 조성 및 지도감독을 한다. ▲종돈등록, 검정업무의 통합 및 개량기구의 일원화 조치 ▲종돈장의 개량사업 참여의 의무화 조치

▲청정종돈 공급을 위한 종돈장의 위생관리 대책 강구 ▲축산기술연구소의 개량업무 직접 개입은 배제하고, 기술지원만을 할 수 있게 해야한다. ▲정부의 개량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강화 조치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 본회, 콜레라·단독 혼합백신 무상공급 건의

본회는 정부가 현재 무상공급하고 있는 돼지 콜레라 단일 백신을 농장관리의 성력화 측면을 고려하여 콜레라·단독 혼합 백신으로 무상 공급해 줄 것을 지난 7월 13일 농림부에 건의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현재 양돈농가들은 돼지 콜레라 백신을 무상으로 공급받고 있으나 예방접종에 따른 성력화를 감안해 콜레라 접종시 돈 단독도 함께 접종 될 수 있도록 혼합백신을 공급해 주도록 요청했다.

## 본회, 98~2000년 중장기 사업계획 확정

본회는 지난 7월 20일 향 후 3년동안(1998~2000) 추진할 중장기 사업계획을 부서별로 확정하고, 사업계획서를 각 지부(회)장 앞으로 송부하여 업무에 참고토록 하였다.

본회는 최근 IMF 한파로 인한 돼지고기의 소비가 둔화되고, 배합사료값의 인상 등으로 인하여 양돈경영의 채산성이 극도로 악화됨으로 인해 양돈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으로, 협회차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타개하기 위하여 중장기 사업계획을 새로이 확정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도부의 경우 울해안에 의무자조금제 입법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가축분뇨의 액비 농경지 살포 두당 단위면

적 축소화 추진 및 처리시설 100% 보조지원, 농가 부채 상환 연장 등을 계속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홍보부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양돈·돼지고기 정보 제공사업, TV·라디오·신문·잡지·지하철·차내 등 매스컴을 통한 돼지고기 소비홍보 사업 등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제2검정소의 경우도 제1검정소에서 실행중인 SEW사업을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하여 위생적인 증돈을 양돈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 본회, 허정 박사에 감사패 증정



본회는 지난 7월23일 최근 수년간 소비자들에게 돼지고기의 영양학적 우수성과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산 돼지고기의 소비를 촉진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보건 증진과 양돈농가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한 허정 박사(서울대 명예교수)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허정 박사는 지난 89년 KBS심야토론(주제: 이상구 박사의 건강론)에 토론자로 출연하여 당시 TV에서 채식만을 강조한 이상구 박사의 건강론에 대한 허구성을 강력 비판하고, 돼지고기 등 축산물 섭취의 중요성을 일반국민들에게 심어주었으며, 그 이외에 최근 수년간 각종 강연과 TV 등 매스컴에 출연하여 소비자들에게 돼지고기의 우수성(경제식품, 건강식품, 장수식품, 우수한 영양공급원 등)과

돼지고기에 대해 잘못 알려진 상식을 올바르게 계도함으로써 돼지고기 소비를 촉진하는 등 국민건강 증진 및 양돈농가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허정 박사는 지난 57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동 대학원에서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최근에는 정부로부터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받아 활동하고 있다. 또한 주요 저서로는 “보건행정학 원론”, “보건상식 164가지”, “보약보다 좋은 건강상식 119” 등 다수가 있다.

## 농림부, “양축가 피해 없도록 도축장 지도 계몽하겠다”

### -본회 건의에 대한 회신서 밝혀

본회가 지난 5월 21일 농림부에 A등급 도체중 하한선을 현행 기준대로 유지해 줄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도체 등급 판정기준에 대한 의견 제출”에 대하여 “국내산 돈육의 품질 경쟁력 향상과 대일 돈육 수출확대로 국내 양돈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 등급을 상향조정한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농림부는 지난 6월 5일 본회에 회신을 보내 “등급 판정시 외관 및 육질 판정이 최종 등급 판정에 관여하여서는 안된다”는 본회의 요청에 대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인 등급 판정이 되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외관 판정 항목 중 마무리 항목에 대하여는 도축장 경영자에게 종사자 교육 등을 통하여 양축가에게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도 계몽하겠다”고 밝혔다.

## 김현병, 윤대열씨 농림부장관 표창 수상

본회 김현병 충남도협의회회장과 윤대열 화성수원지부장이 지난 6월 28일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열린 제2회 양돈인의 날 행사장에서 김성훈 농림



김현병  
충남도협의회장



윤대열  
화성수원지부장

부장관으로부터  
농림부장관 표창  
을 수상했다.

김현병 도협  
의회장은 방역  
부문에서, 윤대  
열 지부장은 양  
돈전산화 부문에서 공을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다.

## 도협의회, 지부 소식

### 충남도협, IMF체제하의 어려움을 극복한 성공사례 세미나 개최

충남도협의회(회장 : 김현병)는 지난 7월 7일 (화) 홍성지부 사무실에서 7월 월례회의 개최 및 영국 및 멕시코 등 IMF체제하의 어려움을 극복한 나라들의 성공사례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도협의회에는 본회 노영한 전무와 김현병 충남도협의회장, 그 이외의 충남지역 각 지부 임·역원 및 전현직 임역원 등이 참석하여 업계의 현안문제를 논의하였으며, 이어서 개최된 세미나에서는 IMF체제를 먼저 극복한 나라들의 성공사례와 양돈산업의 변화 등에 대해 들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 전남도협, 수출규격돈 생산에 관한 논의

전남도협의회(회장 : 최희태)는 지난 7월 15일 (수) 11시에 전라남도 협의회 사무실에서 본회 노영한 전무와 전남도내 각 지부 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7월 전라남도 도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전남도협의회에서는 최근 돼지고기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는 있지만 수출규격돈의 생산이 미

약하여 수입국에서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적정한 출하시기와 비육후기사료의 올바른 급여 등을 할 것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출하시 주의해야 할 점 등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였다.

### 함안지부, 회비 자동이체 실시

함안지부(지부장 : 이길수)는 회원들의 회비납부를 원활히 하기 위해 은행간 자동이체 제도를 이용해 회비 수납을 실시하고 있다. 함안지부는 지난 5월 월례회에서 회비 수납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자동이체 제도를 이용하기로 하고 지난 6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회원들의 회비는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일정액을 매월 수납하고 있으나 시간과 경비 절감을 위해 이같은 제도를 이용하기로 했다. 함안지부 관계자에 의하면 “지부 회원이 50명인데 이 제도의 시행으로 회비수납이 원활해 졌다며, 회비수납과 관련한 독촉을 하지 않아 업무의 능률을 올릴수 있다”고 말했다.

### 마산지구지부 창립 24주년 기념식 개최

마산지구지부(지부장 : 이용모)는 지난 7월 8일 지부 창립 24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최상백 회장은 이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마산지역 양돈산업 발전에 공이 큰 마산시 권영근 농정과장, 창원시 황가주 농정과장, 마산시의회 정기홍 내무부와 위원장 등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養豚**

